

국가별 동향



터 키

가금육 수출 2배로 켜쑤

터키의 가금육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증가하면서 양계생산자협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6,600만달러에 도달했다. 터키의 가금육 수출액은 2006년에 2,800만달러였고, 이후 수출부분에서 높은 수익을 보이며 2007년에 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8,700만달러에 도달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올해 말까지 수출량을 새롭게 기록하면서 올해도 높은 수출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원인은 이라크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가금육 수요 증가로 인해 고조됐다. 브라질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했던 이라크는 신선육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량이 늘어났고, 현재 터키는 이라크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신선한 가금육 제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로 수출되는 가금육은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 116%나 증가하였다.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베트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터키 가금육의 4대 소비국으로 꼽힌다.(www.thepoultrysite.co.kr)



캐나다

계란에 혈압 낮추는 성분 있다

계란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 농업-식품-영양학과의 우젠핑 박사는 계란에서 생성되는 펩티드가 혈압강화제 중 하나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와 유사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우 박사는 삶은 계란과 프라이 한 계란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와 소장 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 ACE 억제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펩티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시험관 실험에서 밝혔다.

삶은 계란보다는 프라이 한 계란이 ACE억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우 박사는 밝혔다. 계란이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우 박사는 덧붙였다. 우 박사는 계란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하여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과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값싼 식품이 계란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계란이 근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유지하게 하며 시장기를 덜어주는 고단백식

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학회(ACE) 학술지 '농업-식품화학 저널(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에 발표됐다.(메디컬뉴스투데이)



인도

계란에서 부화한 태아



지난 7월 5일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주(州) 바렐리 칼라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닭의 계란에서 부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간 태아가 있다고 동물병원 직원들이 전했다. 의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태아의 신장은 15cm, 몸무게는 약 100g이다.(연합뉴스)



중국

미국의 가금류 수입제한조치 관련 WTO 제소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장벽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의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은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WTO에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보건상의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한 반면 미국은 중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가 올해로 WTO에 가입한지 9년째 접어든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아시아경제)

'VIV China 2009' 축산박람회

10월 19~21일 개최

VIV China 2009 축산박람회가 오는 10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회관에서 개최된다. VIV China는 닭, 돼지, 소, 오리 등 주요 축산업에 관련된 사료, 설비,약품, 첨가제, 컨설팅 등 축산업 모든 분야에 홍보가 이루어지고 양계박람회라고 불리어도 손색없을 만큼 양계산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많은 참가율을 보이는 자리이다. 지금까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등 20여 개국 이상, 500여개에 가까운 업체가 참가하는 큰 규모의 박람회로 진행됐었다. 자세한 내용은 www.viv.net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양계**